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2000 홍해작전 6월 6일(화) 진군 시작

#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00 홍해작전이 20일 앞으로 다가 왔다.

교회는 매년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로 전개되는 홍해작전의 올해 주제를 “우리의 소망되신 그리스도” (딤후1:1)로 표어를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로 정하고 내달 6일(화)부터 25일(주일)까지 20일 간 실시하기로 했다.

홍해작전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본

을 따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현재의 모든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지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전교인이 새벽에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받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홍해작전은 ‘말씀과 기도의 운동’으로도 불리운다.

교회는 올해 홍해작전의 7대 기도제목으로 ① 나라와 민족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② 정권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당 건축의 사명 완수를 위해 ③ 서울교회의 부흥을 위해 ④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⑤ 한국교회갱신연구원과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⑥ 태신자 전도와

테마 전도를 위해 ⑦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등으로 정했다.

### 오늘 제직회서 집사 후보 추천

우리 교회는 28일(주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고 집사 20명, 권사 40명을 선출한다. 이를 위해 오늘 찬양예배 후에는 임시제직회를 통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집사 후보를 종다수로 배수공천한다.

집사의 자격은 나이 만 30세 이상된 남자(1970년 생 포함)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흠없이 5년 이상 경과된 자여야 하며 서리집사로 3년 이상 봉사하고 다모데전서 3장 8-13절에 해당하며 신덕이 있고 봉사에 모범된 자라야 한다.

이명해 온 타교회 직분자인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한 자로 본 교회 등록 2년 이상된 자여야 한다.

한편 권사 후보는 15일(월) 임시 당회를 통해 40명을 공천하게 된다.

### 2000 홍해작전 개요

- 주 제: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 표 어: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2:10)
- 기 간: 1996년 6월 6일(화) ~ 6월 25일(주일), 20일 간 새벽 5 ~ 6시
- 행동강령: 1. 하나님의 전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 새벽기도회 강사: 이종윤 목사

# 한가족 한마음 축제

## 6월 6일(화)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전교인 체육대회인 “한가족 한마음 축제”(진행위원장 박철훈 장로)가 6월 6일(월)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선수단이 입장하면서 시작되어 개회식을 갖고 바로 각종 경기에 임하게 된다.

모든 경기는 전 교구를 청팀(1, 2, 5, 6, 7, 8 교구)과 백팀(3, 4, 9, 10, 11, 12교구)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에어로빅, 실내축구, 피구, 줄다리기, 손님모시기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돼 있다.

점심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다락방 식구들과 모여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게 된다.

누게 된다.

또한 가정의 달에 가지는 행사인 만큼 어린이를 위한 행사 및 경기와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등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모든 경기를 마치면 주변 청소와 정리 정돈을 한 후 폐회예배를 끝으로 오후 5시에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된다.

이번 축제의 표어는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이며, 주제 성구는 아가서 2장 10절, 주제 찬송은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이다.

“한가족 한마음 축제”는 1993년 중앙대학교 운동장에서, 1994년 잠실보조경기장에서, 1997년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바 있다.

### 제 4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 우리 팀 · 우리 교구

팀명	청팀	백팀
해당 교구	1, 2, 5, 6, 7, 8교구	3, 4, 9, 10, 11, 12교구
단장	이웅선 장로	임광식 장로
감독	전인화 권사	백영희 권사
응원 단장	박두호 장로	최종시 장로
부 단장	허상한 집사	이관규 집사

제자의 도 ③

영적 전투

에베소서 6장 10 -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종운 목사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영적 전투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1. 영적으로 강건해야(10절)

그리스도의 제자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병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영적으로 시들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강건한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주 안에서 살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또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주의 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앓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창세 전에 택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정치가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덕택입니다.

심고 물을 주는 이가 각각 달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기업이 번영을 이루고 자녀들이 창대케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능력입니다.

2. 적을 알아야(11절)

우리는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전쟁에 나가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복음은 옥도에 떨어뜨려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돌짜발이나 가시밭, 혹은 길가에 뿌려지게 되면 새가 와서 쪼아먹거나 썩이 나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마귀는 복음이 바로 이런 곳에 뿌려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보다 힘이 세고 지혜가 높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그리스도 예수만은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고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간사하고 힘이 세도 예수님께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됩니다.

3. 그리스도를 닮아야(12절)

제자는 선생님을 모방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

자는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고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원수를 대적할 때 혈과 육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혈과 육을 사용하는 싸움은 목적이 어떤 것이든지 방법론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통치자관 세상을 주관하는 악마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이와 같은 악의 영들입니다.

4. 전신갑주를 취해야(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진리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실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각각 크고 작은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큰 능력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일이 행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실함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의의 호심경' (14절)을 붙이고 진실 되게 살아야 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15절)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것은 평화의 행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고쳐보겠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그를 확실하게 고칠 것입니다.

5.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14 - 18절)

성령의 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16 -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울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18절).

기도의 내용을 영어로 사도행전(ACTS) 첫 자를 따라서 말합니다. 즉 Adoration(찬양), Confession(고백), Thanksgiving(감사), Supplication(간구)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뜻을 이땅에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되 무엇보다 성도를 위하여 쉽없이 간구를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19 -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19 - 20절).

그리스도의 제자는 항상 기도하되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갖고 그 위에 기도로 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에



##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들이”

최지혜(전도사, 유치부 지도)

유치부에서는 가정의 달과 특별히 아버지 주일을 맞은 오늘 I·II부 연합으로 10시 20분부터 30분 간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연 후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사랑의 편지 꽃이”를 만듭니다. 이 편지 꽃이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가정에서 자주 나눌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유치부는 유치부 어린이만큼 순수하신 노송성 장로님, 대모처럼 다정다감하신 김숙자 권사님, 큰오빠처럼 책임감 많으신 이계홍 부감 집사님과 19명의 교사가 하나 되어 어린 생명들을 가족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등록하시고 출석하고 계시지만 아직 자녀를 유치부에 보내고 있지 않으신 부모님께서는 주저마시고 맡겨주시면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유치부는 36개월 이상 학령 전의 아동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배우는 부서입니다. 유치부의 제 I부 예배는 오전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제 II부 예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별관에서 드립니다.



##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조종화(고등부)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모님께 그동안 미처 드리지 못했던 말씀을 이렇게 글로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덧 제가 고등학교 3학년생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부족한 것 없이 저를 돌보아주시고 은혜를 생각하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순종해야 마땅하겠지만, 저는 지금껏 그래오

지 못했습니다. 사실 두 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단지 제가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제가 어찌다가 조그만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밤새 잠을 못 이루시고 기도하시기에, 예전에는 그렇게도 크게만 느껴졌던 부모님의 모습..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작아져버린 그것을 볼 때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남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제 자신을 책임지는 그러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 “아버님을 그리며”

하정자(권사, 7교구)

우리 할아버지께서 독립 운동에 투신하시면서 가계는 기울어지고 가족들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이곳 저곳으로 숨어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우리 아버님은 가족의 생계를 도맡으시고 갖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으시고 재산을 일본에 남겨두신 채 급거 귀국하시어 정성껏 간호하시고 효도하셨습니다.

집안을 다시 일으키시고 삼촌(아버지의 동생들)을 공부시키셨으나 6·25동란 때 동생과 어머니를 잃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 와중에 진주에 있던 우리 집 옆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지금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우리 2남 5녀의 가족들이 모두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자기를 낮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잘 섬기시고 배꼐기를 좋아하시며 공부도 시켜 주셔서 잘 되신 분들을 보면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셨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삶의 본을 보이셨고 형제 우애를 돈독히 하셨습니다. 자연을 사랑하시어 마을에 찾아든 학의 무리를 지성으로 돌보아 할아버지로 소문이 나고 수상을 하기도 하셨

으며 그 지역을 천연기념물 보호 지역으로 만드시고 범죄 없는 마을을 이루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님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전 “잠에서 깨어나면 주님 품에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신 후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으나 사시는 날 동안 굳은 신앙과 자신의 이익을 구치 않으시는 섬김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쁘고 행복하다. 주님의 은혜로 88년을 살았고 자손들 모두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고 다 신앙 생활 잘하고 중손까지 보았으니 그저 행복할 뿐이다” 라고 하신 아버님을 말씀과 그 모습을 기억하며 잠시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달래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눈물을 거두려 합니다.

이제 저는 고아(?)가 되었으나 아버님처럼 주님을 더욱 더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더 기도해 주십시오.

생전에 아버님께서 아끼시고 즐겨 읽으시던 순례자 지면을 통해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경남 하동 먼 곳까지 오셔서 위로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순례자 칼럼

### 위대한 유산

자녀에게 재산과 명예를 물려주고 후배에게 전통과 지위를 남겨놓는 것을 우리는 훌륭한 유산이라고 부른다. 물질적 유산이나 문화적 유산에 못지 않게 정신적 유산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좋은 유산을 자녀와 후배들에게 남겨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사람마다 생각의 규범에 따라 무엇이 가장 크고 귀한 유산이 되겠느냐가 결정되겠지만 영원한 것은 신앙 유산이다. 철모던 어린 시절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부르던 찬송가와 함께 읽던 성경 말씀이 그 인격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신앙 유산을 받은 디모데가 이 땅에도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자.

# 다락방 찬양대회 오늘 찬양예배 시 시상과 발표

다락방 찬양대회 시상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실시된다.

12일(금) 오후 7시 1층 예배실에서 개최된 다락방 찬양대회에는 노인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250여 명이 참가하여 지정곡인 찬송가 91장과 자유곡 등 2곡의 찬양으로 열띤 경연을 벌였다.

이날 심사는 복장 및 태도와 표정, 음정, 박자, 화음, 참여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오늘 시상식에서는 사랑상

제 10교구연합다락방, 소망상 제 4교구 연합다락방, 민음상 12교구연합다락방 등이 수상한다. 또한 여성만으로 구성되어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드린 제 11교구 연합다락방과 앞치마, 컵 등 소품을 이용해 특색있는 울동으로 시선을 끈 제 7교구 연합다락방이 장려상과 특별상을 각각 수상하게 됐다.

오늘 수상하는 팀의 참가자 전원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질 예정이다.

해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열리는 다락방

찬양대회는 성도들의 음악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락방의 활성화와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구성원간의 친목 도모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찬양대회에는 새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심사 총평을 한 박정선 집사(할렐루야찬양대 지휘)는 "앞으로 교구별로 좀더 특색있고 다양한 찬양들을 선보일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70인전도대 활동 보고

# 감자를 한 술 샅았습니다

이상호 (집사, 70인전도대 간사)

지난 토요일(6일) 서울교회 70인전도대원들은 감자를 한 술 샅아 교회 앞 건널목에 들고 나갔다. 길 가던 신사 숙녀, 어린이와 노인들, 중·고등학생, 대학생과 청년들, 데이트하는 젊은 커플... 모두가 감자 술이 놓인 테이블에 둘러 앉아 감이 모락 모락 피어나는 감자를 나누어 먹으며 도란 도란 이야기도 하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한 감자 파티에서 2시간 만에 한 술의 감자가 동이 났다. 그러는 중에 23명의 결신자가 생겼고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주님께서 달리 칠십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보내며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셨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70'이라는 숫자는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숫자였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세우셨음은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를 교구로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서울교회가 힘차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70인전도대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70인 전도대는 현재 복음으로 달구어진 열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참여한 성도들이 매주 토요일 교회에 나와 목사님으로부터 체계적인 전도 방법을 습득하고 즉시 현장에 나가 체험적 전도를 통해 전도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70인전도대에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진 성도님들은 언제라도 입대해 줄 것을 환영한다. 새 예배당 시대를 대비하며 다양하고 심층적인 전도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70인 전도대가 많은 성도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18일(목) 대전 유성에서 개최되는 총회전도부 정책협의회에서 주체 강연을 한다.
- \* 장애희 권사(1교구)는 은빛찬양대 가운 72벌을 기증했다.
- \* 아버지주일인 이번 주 식사는 김복녀 권사(이종울·이승희 집사), 김동렬 집사·최정자 권사, 이계홍·성순자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베들레헴찬양대는 15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5월 15일 - 제 1교시 / 사도행전 연구(이종윤)  
제 2교시 / 우리 경제의 미래와 내일을 여는 기독교인의 자세(백영훈)
- 5월 22일 - 제 1교시 / 사도행전 연구(이종윤)  
제 2교시 / 한국언론사에 나타난 언론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대안(강대인)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심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2. 흥해작전과 한마음 한가족 축제를 위해
3. 복녘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 교외약도

